

여수시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약속해야”

정부 COP28 유치 양보 결정 아쉬움 표명 COP33 개최지 남해안남중권 先지정 촉구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8일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 결정에 대해 “남해안 남중권 주민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참여를 의뢰한 정부는 주민들의 실망감을 보

상할 수 있도록 COP33이 남해안남중권에 반드시 유치되도록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COP28 유치를 아

메이레이트연합(UAE)에 양보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 유치를 공식 발표했다.

권 시장은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은 2008년부터 지난 13년간 COP 유치를 위해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 읍·면·동 별 유치위원회 구성, 1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COP28 유

치위원회 활동, 각급 기관들과의 유치 지지 운동 등 자발적인 유치활동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지역민들의 수고에 위로와 아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수시는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시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그린뉴딜정책에 부합하는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시민 녹색생활 실천,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역동행계획 추진, 여수국가산단 주요사업장들과 자발적 청정연료 사용협약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더욱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를 위해 컨벤션센터도 추가 건립하고 어떤 국제행사도 개최 가능하도록 MICE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는 198개 회원국(196개국, EU, 교황청) 총 2만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이다.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과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고성) 총 12개 시·군이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동서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여수=김진선기자

담양군, 공중화장실 ‘불법 몰카’ 점검

담양군은 19일 “최근 관광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민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자체 편성해 흡입·파손 여부, 불법 촬영 의심 물체 여부, 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장비를 이용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지 쉬운 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의심 흔적에 스티커 부착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 보수해 군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도 생태환경과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관내 공중화장실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광양제철소, 예지정비 기술 경진대회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19일 “최근 2021 예지정비(PIMS) 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지정비 기술은 설비 센서나 공정 제어 과정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설비 상태 감시 및 고장을 예측하고 사전에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설비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광양제철소 설비 부문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지정비 기술을 활용한 설비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포스코 사상 처음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설비담당 직원이 원격 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예지정비시스템 활용 모습을 설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등 기존의 발표형 경진대회와 차별점을 뒀 눈길을 끌었다.

제1회 예지정비 기술 경진대회에는 정

비 직원이 예지정비 기술을 통해 무인화 점검과 경제적 설비관리를 구현한 사례를 생생히 담아낸 6건의 과제가 출전했다. 심사위원들은 ▲장의성 ▲효과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과제 1건과 우수과제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도금강판 생산공장 설비상태 모니터링 및 예지정비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안연설비부 조대인 계장에게 주어졌으며 우수상은 선강설비부 심정섭 과장이 차지했다. <사진>

조대인 계장은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한 원격 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기존 설비점검 방식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현장 설비점검 노하우를 설비 모니터링 및 이상 관측 시 실시간 알림 등에 지정비 기술로 녹여내 안전리스크를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1일 점검항목을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였다. /광양=양홍렬기자



장흥 산림치유 힐링프로그램 ‘인기’ 장흥군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심신을 편안하게 가꾸는 산림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인기다. 숲알아보기, 신체 치유,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흥군 제공>

“남산공원 국화동산서 가을 정취 만끽하세요”

화순군, 오늘부터 사전예약제 운영 27일부터 관람 조형물 22점 배치...포토존 등 ‘감성 로드’ 눈길

화순군이 화순읍 남산공원에서 ‘국화동산 관람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사전 예약제를 통한 남산공원 관람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9일간 가능하다.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순 국화향연을 전면 취소하는 대신, 가을철 군민과 방문객에 위로를 전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지난해에도 철저한 방역 절차와 안전한 사전 예약제 운영으로 방문객의 호응도가 높았다. 예약제 운영 기간에 2만2천106명이 남산공원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

사전 예약은 관람 시작 1주일 전인 20일부터 할 수 있다.

예약은 ‘화순 국화동산 사전 예약’ 누리집(<https://cf.hwason.go.kr>)에서 하

면 된다. 관람은 하루 4차례, 관람 인원은 하루 1천명으로 제한한다.

당일 예약은 운영하지 않으며 관람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정해 예약하면 된다.

화순군민은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화순군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자, 자가 격리 중인 사람,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입장이 제한된다.

국화동산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반려동물은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주차는 남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9곳에 할 수 있다. 주차장 정보는 사전 예약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국화향연 취소에 따라 국화 조형물을 13개 읍·면에 분산 배치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축제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던 조형물 22점을 남산공원에 배치하고, 응원 문구를 담은 포토존 등 ‘감성 로드’를 조성해 재미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공원 외에 동구리 호수공원 입구, 광덕문화광장, 군청 앞에도 공룡, 문화재, 캐릭터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을 설치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화순=이병철기자

흑두루미 3마리, 순천만 출현

겨울철 전역 흑두루미가 지난해보다 다섯 배 빠른 지난 18일 오전 순천만 갯벌을 찾았다.

이날 관찰된 흑두루미 선발대 3마리는 현재 순천만 갯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이즈미시도 같은 날인 18일 오전 흑두루미 19마리의 첫 도래 소식을

전해와 흑두루미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음을 예고했다.

순천시 흑두루미 영농단도 이날 말까지 추수를 마치고 11월부터 철새지킴이 활동으로 전환한다. 흑두루미 희망농업 단지 주변에 갈대울타리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친환경 병

씨를 제공해 새들의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겨울철새 도래 기간동안 일시 폐쇄했던 무진교-탐조대-안풍습지 구간 일부를 개방해 순천만 입장객에 한해 흑두루미 탐조 코스를 운영한다.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탐조문화권을 만들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자

국경 없는 하늘 길을 따라 남북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평화 메신저”라며 “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흑두루미 국제 사진 공모전은 오는 29일까지 1인 당 3점 이내 장축 기준 3천 픽셀 이상 사진과일을 전자우편 또는 공모전 누리집(www.heugdurumi.com)으로 접수 가능하다. /순천=남정민기자

상가 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당진신축 (원룸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배,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사비없음)</p> <p>010-6670-9800</p>	<p>투자확신/강력추천!</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p>◆ 월수익 750만</p> <p>◆ 연수익 9천만</p> <p>◆ 매매13억 (용6억5천)</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림 10년간 임대걱정 없음. 대신항10분, 화력발전소 5분</p> <p>현대오일뱅크, 엘지정유, 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010-6670-9800</p>	<p>특수경매전문(유치권, 법지, 지분)</p> <p>① 기초반,실전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반,실전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엔피엘전문) ④ 전문반 모집 (직업가능,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컴퓨터제공,매주1회 물건스터디</p> <p>광주</p> <p>광산구 우산동(근린주택) ▶감정가 18억 →최저가 13억 (9/28)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감정가 8억3천 →최저가 5억8천 (9/28)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6천 (9/28) 서구 동천동(아파트)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3억5천 (10/6) 서구 농성동(근린주택) ▶감정가 8억1천 →최저가 4억5천 (10/20) 동구 계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 →최저가 4억2천 (10/20)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1억2천 →최저가 8천9백 (10/29)</p> <p>전남</p> <p>화순군 백아면 (근린시설) ▶감정가 13억 →최저가 4억8천 (9/28) 여수시 신기동(근린주택)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 (10/5) 장성군 황룡면 (공장) ▶감정가 68억 →최저가 19억 (10/6) 목포시 대양동(임야) ▶감정가 2억7천 →최저가 7천 (10/12) 곡성군 곡성읍(숙박시설) ▶감정가 1억 →최저가 7억4천 (10/27)</p> <p>시외</p> <p>부안군 번산면(숙박시설) ▶감정가 4억 5천 →최저가 2억 2천 (9/27) 인천 부평구 (근린시설) ▶감정가 38억 9천 →최저가 19억 (10/19)</p> <p>062-382-5500</p>